■ **르포** 성매매 특별법 5년 … 더욱 퍼져가는 광주의 '홍등'

21일 광주의 한 집창촌.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단속으로 유리방 형태의 기존 성매매 집결지는 해체되고 있는 반면, 신종·변종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집창촌 줄고 신·변종 업소 '활개'

'대딸방' '키스방' '안마시술소' 등 성업 중

직업·나이·장소 불문 전화 한통에 "OK"

전화를 건지 10분쯤 흘렀을까. 김성희(여·30·가명)씨가 기자가 있는 모텔에 도착했다. 성희씨는 "한 달 수입이나 이 일을 하는 이유 등을 묻는 것은 실례"라면서도 "결론은 '돈'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어차피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있는 게 아니냐"며 콜비 1만원을 들고 다시 거리로 향했다.

성희씨 같은 여성들을 만나는 건 쉬웠다. 상무지구 등 광주지역 원룸촌이나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마구 뿌려진 명함형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면 모텔이나 원룸, 아파트 등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과거에는 성구매 남성들이 성매매 집결지(집창촌)로 갔다면, 지금은 전화 한 통이면 성매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신·변종 성매매 창궐**=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3일로 5년이 됐다. '창녀촌', '윤락가' 등으로 불리던 성매매 집결지는 법 시행 이후 사실상 붕괴됐으나 성매매 자체는 신종·변종으로 변신(?)을 거듭하며 날로 심화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유리방 형태의 기존 업소는 동구 대인동과 광산구 송정동, 남구 월산동, 동구 계림동 등 4개 지역에 80여개 업소가 있으나 대부분 명맥만 이어가고 있다.

반면 마사지 업소나 안마시술소, 피부관리업소 등에서는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유흥주점의 속칭 '2차'도 단속망을 피해 성업 중이다.

성행위를 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주며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이른바 '대딸방'과 '키스방' 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업주들의 주장과는 달리 성매매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연령 낮아지고 인터넷 성매매 성행**=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기존의 '직업여성'이라고 불리던 일반인과 성매매 여성들의 구별은 약화되거나 무의미해지고 있다. 여대생이나 주부 등은 물론, 심지어 가출 청소년 등 10대 성매매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 광주에서는 올 들어 8월 말 까지 청소년 성매매 사범 125명이 적발됐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153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도 급증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올 들어 8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했다가 59명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 건수(47명)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인터넷이 성매매의 주요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성매매 사범 매년 증가**=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매매 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속 건수(인원)는 2005년 416건(892명)에서 ▲2006년 1천2건(1천75명) ▲2007년 583건(1천805명) ▲2008년 1천204건(2천179명)에 이른다. 올 들어선 8월 말까지 888건(1천506명)이 적발됐다.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김란희 소장은 "날로 진화하는 성매매 수법을 관련 제도나 경찰의 단속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성 구매자들과 업주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성매수 남성들의 의식개선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교육위 의장 선거

'금품수수' 수사 착수

경찰, 관계자 소환 검토

전남도교육위원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본보 18일자 6면)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서견용 의장이 A위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한 데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금품 선거'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인 등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하는 한편, 추후 관계자 소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의장은 지난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뒤 "난 부끄러운 게 없다. 하반기 선거 때 A위원에게 받은 5천만원도 돌려줬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적조가 사라졌다

여수해역 14년만에 발생 없어

여수해역에서 14년만에 적조가 사라졌다. 22일 전남도수산기술사업소 여수지소에 따르면 매년 8월께 여수 등지를 중심으로 남해안 해역에 발생,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적조가 올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판명됐다.

여수해역에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14년만의 일이다.

여수지소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선박과 항공기 등을 통해 여수와 고흥 사이 보돌바다, 고흥 나로도, 여수 거문도 등 상습 적조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예찰활동을 벌인 결과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 않음에 따라 올해 적조 발생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는 올해 7~8월 강수량이 993㎜로 평년보다 2.3배, 작년보다는 5배 가량 늘어 해당 해역의 저염분·저수온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유해성 코클로디니움이 번식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때문으로 여수지소는 분석했다.

여수해역의 유해성 적조는 지난 1995년 처음 발생해 106억원의 피해를 낸 데 이어 2003년 43억원, 2007년 6억원 등 한해도 거르지 않고 피해를 줬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세무조사 무마" 병원 돈 뜯은 브로커 검거

40대 금융계좌 압수수색

공무원 관련 여부도 수사

광주지방경찰청은 22일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전남지역 한 병원을 상대로 돈을 받아챙긴 조모(45·약품도매상)씨를 상대로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조씨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한 뒤 본인 계좌는 물론, 차명계좌 등을 통해 돈이 흘러갔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특히 조씨의 진술대로 세무조사 무마 조건으로 받은 돈을 공무원에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해당 병원이 거액의 법인세를 탈루하고도 조씨를 통해 허위 자료를 정상자료인 것처럼 조작, 세무조사를 피해갔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공장 철문에 끼어 20대 숨져

21일 밤 10시40분께 영암군 삼호읍 모 중공업에서 직원 A(24)씨가 10여m 높이의 대형 철문에 사이에 끼어 심하게 다친 것을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공장 동료들은 "A씨가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출입구 철문 사이에 끼었으나 문이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영암=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나원참 〈7910〉 김종두

율촌산단 교통사고 2명 사망

22일 낮 12시50분께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업단지 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모(48)씨가 운전하던 모하비 승용차가 갓길 경계석과 방호벽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씨의 아내 이모(58)씨와 동승자 김모(여·44)씨가 숨졌으며, 운전자 이씨와 임모(여·74)씨도 중경상을 입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벌초 왔는데 봉분이 사라졌어요"

쌍나팔

○…추석을 앞두고 문중 선산에 벌초를 하러 간 50대 남성이 자신의 할머니의 봉분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발을 동동.

○…2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P(55)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북구의 한 야산에 있는 할머니 산소를 찾았다가 봉분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P씨는 경찰에서 "14년 전 할머니의 무덤을 이곳에 만들고 일년에 두 세 차례 벌초를 해왔는데, 봉분은 온데간데없고 묘지가 평지가 되어 있었다"고 하소연.

○…경찰은 P씨 할머니의 묘소가 문중 선산인 점으로 미뤄 먼 친인척들이 합장 등 묘지를 조성하면서 봉분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인근 묘지 주인 등을 상대로 조사.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